

새마을運動 効率化에

— 科學技術 普及하여



閔寬植 會長

尊敬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새마을指導者와 閔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由緒깊은 中原의 都市 大田에서 李啓完충남지사, 徐明源충남대학교총장과 來賓여러분을 모시고 第6回全國새마을技術指導事例發表會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第5共和國을 樹立하고 激動하는 國際情勢속에서 80년대의 新時代 新歷史를 創造하여 새로운 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고자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모든 國民은 이 激浪의 內外情勢속에서도 叡知를 모아 새 領導者를 모시고 國家保衛와 社會安定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당면한 經濟難局을 극복해야만 하는 時点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마을運動의 求心點이 되고 있는 技術指導事例를 綜合分析하고 그 效果를 評價하여 새로운 發展方向을 정립하려는 것은 時宜適切한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創造的이고 能率的이며 合理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科學的인 思考涵養으로 새마을運動의 內實化와 持續的인 發展을 이룰수 있도록 先導의 役割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 백만 科學技術人의 總本山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全國 9 個道에 새마을技術奉仕團을 結成하고 새마을運動現場에 科學技術의 普及活動을 전개한 것은 이러한 目的達成을 위한 것입니다.

大學校와 實業學校를 비롯한 教育界와 研究機關에 종사하고 있는 科學技術人이 協동하여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技術奉仕團은 그동안 各 道單位로 地域特化事業指導, 마을單位의 技術結緣指導, 新聞 및 放送을 통한 指導, 書信 및 敎本을 통한 指導活動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72年 創團이래 지금까지 2,만여회에 걸쳐 40여만명에게 現地出張技術指導를 실시한바 있으며 新聞 및 放送을 통하여 8천여회를 啓導하고 일상

先導的 役割 다해야

營農의 科學化 促進 —

생활에 필요한 生活科學 및 營農技術을 내용으로한 技術敎本 11만 6 천부를 發刊, 새마을 文庫用으로 無償配付하였습니다.

그리고 地域別로 技術移植 示範마을조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推進하는 한편 短期營農技術學校를 開設 運營하여 農漁村의 近代化를 촉진하는데 寄與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科學技術人들의 이러한 노력은 地域間의 立地的條件과 特殊性 그리고 住民들의 參與度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括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의 未洽으로 우리 科學技術人들의 農漁村近代化를 위한 獻身的인 努力에 비하여 아직도 量的 또는 質的으로 만족할만한 指導活動을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새마을技術奉仕團이 지난 1년간 전국의 農漁村에서 所得增大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指導하고 있으며 그 效果는 어떤가를 科學技術人과 새마을指導者 여러분이 相互隔意없이 檢討하고 討議해서 큰 成果를 擧揚할 수 있는 指導方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발표와 토론으로 營農의 科學化는 물론 生活의 科學化를 진작시킬 수 있는 方案을 創出하여 새마을運動을 보다 活性化시키는 契機가 되어 줄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새마을技術奉仕團의 활동을 積極支援하여 주신 政府當局과 言論關係者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現場에서 手酷하시는 指導者 여러분과 특히 이번 行事に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忠南道當局을 비롯한 忠淸南道 새마을技術奉仕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1년 11월 20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閔寬植